

2050 전북 미래발전 청사진 윤곽

소통·복지·생태에 집중

도, 혁신성장·미래비전 기획단 운영회의 “새만금~혁신도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성장축으로 육성할 것”

향후 30년 전북 발전을 이끌 전북도의 미래 청사진 작업이 윤곽을 나타내고 있다.

전북도는 12일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전북 혁신성장·미래비전 기획단(이하 기획단) 운영회의를 열고, 전북 30년 미래 발전 밑그림인 '전북 혁신성장·미래비전 2050'에 대해 세밀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도는 우선 향후 30년을 내다보는 미래 발전의 청사진으로 새만금~혁신도시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성장축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아울러, 새만금~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혁신 성장축과 함께 태권시티 조성, 심정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노령산맥권 휴양, 치유벨트조성, 지덕권 산림치유원 등 동부권을 휴양·힐링 벨트로 특화 발전시키는 전략도 제시했다.

또한 전북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농생명을 비롯해 탄소융복합, 자동차·기계산업을 고도화시키고 융합콘텐츠, 바이오, 연기금 중심의 금융산업을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에 들어갔다.

도는 중간보고회 성격을 가진 이날 기획단회의에서 그동안 발굴한 5대 전략, 18개 핵심프로젝트, 180개 세부 실행과제를 통한 미래 청사진 실현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에 들어갔다.

5대 전략에는 ▲글로벌 스마트 농생명 산업 육성 ▲제조업의 스마트 고도화 ▲ICT·융합콘텐츠 및 휴양·힐링 거점 조성 ▲금융·창업 등 지식 서비스 허브 구축 ▲글로벌 공공인프라 및 스마트 시티 조성 등이 포함됐다.

18대 핵심프로젝트는 ▲스마트 농축수산 혁신 벨트 조성 ▲식품클러스터



12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전북 혁신성장·미래비전 기획단(이하 기획단) 운영회의를 열고, 그동안 발굴한 5대 전략, 18개 핵심프로젝트, 180개 세부 실행과제를 통한 미래 청사진 실현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글로벌 거점화 ▲지능형 이동체 거점 클러스터 조성 ▲바이오 메다-테크 글로벌 거점단지 조성 ▲글로벌 콘텐츠 문화수도 실현 ▲새천년 글로벌 관광 벨트 조성 등이 담겼다.

전북도가 이처럼 전북 발전 미래 청사진 발굴에 착수하게 된 것은 1980년대부터 전북 발전과정을 돌아본 결과, 전북은 전통적인 농도로 농업과 노동 집약적인 제조업 위주의 경제구조가 지속됨으로써 산업화 과정에서 뒤처지고 낙후가 심화됐다고 진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전북이 산업화 이후에도 일부 산업 단지 위주로 자동차, 화학, 기계 산업 등의 분야에서 산발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으나 핵심발전 거점과 성장축이 부재했다고 분석, 전북발전의 핵심 성장 축 육성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전북도는 앞으로 대토론회를 통해 전문가, 산업 관계자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전북 혁신성장·미래비전 2050' 전략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과거에 전북도는 산발적으로 발전해오긴 했지만 산업

화 과정에서 소외되고, 핵심발전 거점과 성장축이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현재는 연구개발특구 지정,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혁신도시 이전,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 확정 등 미래 발전을 위한 기반들이 차근차근 다져지고 있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그러면서 “앞으로는 전라북도도 새만금~혁신도시라는 핵심 거점과 동부권 휴양·힐링 벨트라는 동서의 성장 축을 바탕으로 콤팩트프할 수 있도록 역량과 지혜를모아나가자”고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덕진구 을 구정운영방향

전주시 덕진구는 현장행정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복지와 안전, 생태환경을 챙겨 가장 인간적인 도시를 만드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김기평 덕진구청장은 1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2018년도 구정 운영 4대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4대 운영 방향은 △한발빠른 현장행정, 소통하는 공감행정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행정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행정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환경이다.

불법 주정차문제 장기적 해결 청원 소리함 등 서비스 제공 환경정비 상태 점검 등도

특히 덕진구는 현장행정을 목표로 그동안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했던 불법 주·정차 문제와 쓰레기 불법 투기, 가로환경 3개 분야를 선정,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또 △매일 전직원 현장행정의 날 운영 △시민불편제거와 기능순찰반 운영 △'우리 함께 청소해요' 청소 온라인밴드 운영 등을 통해 시민불편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동시에 구는 공감행정을 위해 △소통과 화합의 펀펀데이(Fun-Funday) △구청장과 프리(Free) 한 끼 △청원 소리함 △민원처리 시민과 끝까지 동행 △시민문화충전소 덕진 갤러리 36.5 등을 운영하고 △주민 등록 정정신고 웹스톱 서비스 △지적 재조사사업 현장사무소 운영 △알기 쉬운 지방세 고지서 사용 △매일 세계 야간상점실 운영 △특수관매입 신고증 당일 발급서비스 제공 등 시민이 감동하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따뜻한 복지행정을 통

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의료급여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꿈꾸는 아이들의 작은 소원 들어주기 △어린이집으로 찾아가는 심리상담센터 운영 △남자어르신 경로당 요리교실 운영 등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연령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나갈 방침이다.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행정의 경우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 △서곡관장~추천대교 도로 개설 △백제교, 삼례교, 회포대교 등 내진보수·보강 공사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농·축산물 안전지 표시 홍보활동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데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101개소 공인 내 쓰레기 수거 등 청소 및 환경정비 상태를 수시로 점검, 화장실·운동기구 등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또 △전주천 징검다리 개선 △전주천 생태학습장 초화류 조성사업 △도시 숲 가꾸기 사업 △환경오염 배출원 운영실태 지도 점검 △대형공사장 비산먼지 및 소음발생 억제 점검관리 등을 추진해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덕진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기평 덕진구청장은 “모든 행정의 목표가 시민의 행복인 만큼 덕진구 전 직원이 '시민의 눈높이', '시민이 있는 현장'을 행정의 출발점으로 삼고 행복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에코시티 입주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첫마중길과 동물과 교감하는 전주생태동물원, 아중호반도시 건설 등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세계적인 생태도시 전주로 도약하는데 일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규민 기자

군산시 - 캐나다 원저시, 우호협력 방안 논의

시, 드류 딜킨스 시장과 어린이 행복도시정책·새만금사업 홍보 등 교류 확대 공감대

군산시 자매도시인 캐나다 원저시의 드류 딜킨스 시장과 국제교류위원회 일행이 2월 11일에서 13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군산시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작년 7월 원저시 초청 '원저시 승격 125주년과 캐나다 건국 150주년 기념행사' 공식 방문에 따른 답방으로 군산시의 초청에 따라 이뤄

졌으며, 문동신 군산시장은 드류 딜킨스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군산시의 어린이 행복도시정책과 새만금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양 도시 간 어린이그림 전시회 지속개최 등 상호성 있는 문화, 경제 등 교류방안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드류 딜킨스 시장 일행은 군산

시의회를 방문, 박정희 군산시의장과 면담을 통해 군산시의 현황과 양 도시 의회의 발전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기간 동안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벨트화지역과 새만금일원을 탐방한 드류 딜킨스 시장은 “풍부한 근대 문화유산을 간직한 역사문화 관광도시

군산을 직접 느낄 수 있게 초청해주신 문동신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수려한 경관의 고군산군도, 새로운 기회의 땅 군산 새만금의 매력에 감탄했다”고 전하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군산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한층 더 친숙하게 느끼게 됐으며 앞으로도 군산시의 지속적인 우호협력을 통해 양 도시가 상생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원저시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최남단에 위치한 대표적인 자동차공업 도시로 군산시와는 2005년 6월에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지속적인 상호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군산=김관문 기자

전북도민 생활만족도, 전국 광역시·도 중 1위

전북도가 전국 광역시·도 주민 생활 만족도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4일까지 5일동안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자치단체 평가와 주민생활만족도 등에 대한 정례 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민들의 생활만족도는 65.2%를 기록했다.

2018년 1월 리얼미터 월간 정례 광역자치단체 평가 조사에서 전북도정

은 52.2%의 긍정(잘한다) 평가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도정 평가의 경우 지난해 12월 49.0% 보다 3.2%포인트 상승한 52.2%가 '잘한다'고 평가해 전국 8위에서 5위로 3계단 뛰어 올랐다.

주민생활 만족도는 작년 12월 평가에서 '매우만족'과, '만족하는 편'이라는 긍정평가가 62.7%를 차지했던 것이 1월에는 65.2%를 기록해 2.5%포인트가 올랐다. /김진성 기자



파리가 유럽의 문화심장터라면,

전주는 아시아 문화심장터입니다



한옥마을을 10배에 이르는 전주 구도심 100만평을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 만들어가는 아시아문화심장터 프로젝트, 그 실례는 전주의 미래를 기대해 주십시오.

·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 · 미래유산 지정 및 보존 · 전주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조성 · 서노송동 예술촌 문화재생

